地理學論叢 제45호 (2005. 2)

전통시대 남양도호부의 중심지와 역사적 변화*

이 기 봉**

A Study on the Historical Change of the Authoritarian Center in Namyang County of Korea until the 19th Century

Lee, Ki-Bong

요약 : 전통시대 남양도호부의 중심지는 조선시대 이전에는 당성이라는 산성에 입지해 있었다. 이러한 입지는 삼국시대까지의 끊임없는 전투에 대한 대비라는 정치적 · 사회적 상황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후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도 당성은 잦은 전쟁에 대한 대비처로서 지방 호족세력의 독자적인 근거지였다. 고려말 조선초에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이 없어지고, 중앙집권화 정책이 강화되면서 남양도호부의 중심지는 평지에 가까운 현재의 화성시 남양동으로 이동하였다. 아울러 지방관이 왕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중심지였기 때문에 진산, 풍수적 형국의 인식, 제사처 등 중심지의 공간적 위엄을 이미지적으로 높이는 장소들이 배치되었다.

주요어 : 남양도호부, 중심지, 당성,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Abstract : From Three Country' s Times(三國時代) to Korye Dynasty(高麗時代) the central place of Namyang County(南陽都護府) had been the Dang-seong(唐城) which was a mountain fortress wall, because a war always could be broken out. But in the beginning of Joseon dynasty(朝鮮時代) the central place was moved to present Namyang-dong Hwaseng-si which was a flat, because possibility of war disappeared and it was centralized powerfully.

Key Words : central place, Country' s Times, Korye Dynasty, Joseon dynasty, Namyang County, Dang-seong

* 본 논문은 아직 발행되지 않은 『화성시사』에 게재할 목적으로 작성된 "전통시대 화성시의 중심지와 역사적 변화"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규장각 객원연구원 (Special Researcher (Ph.D), The Kyujanggak Archiv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 서론

전통시대 군현의 중심지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조선시대의 읍치(邑治)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1] 이렇게 된 이유는 우선 현재의 시군 중심지 상당수가 조선시대의 읍치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도시에 대한 연구가 현재로부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은 당연하게 조선시대의 읍치이다. 다음으로 전통시대의 군현 중심지에 대한 구체적인 형태와 구성 체계를 알 수 있는 자료는 대부분 조선시대의 것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대략적인 위치조차도 애매한 조선시대 이전의 군현 중심지를 연구한다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한반도에 존재한 전통시대 중심지의 보편적 공간 이미지가 어떤 것인가와 같은 물음에 직면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즉, 조선시대의 읍치나 읍성의 모습이 역사 이래 한반도 전체의 보편적 이미지라고 오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읍치나 읍성의 입지,

---

1) 조선시대의 읍치나 읍성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강규민, 2000, "읍성의 공공시설 배치규범에 관한 연구: 충남지방의 14개 읍성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 현, 1995, "읍성의 공간구조 및 건축물 변천에 관한 연구: 조선중기사회변동에 따른 도시화 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내현, 1998, "조선후기 읍치와 그 거주민 구성에 관한 일고찰", 한국사학보3 · 4, 345-365.
김기혁 · 김성희, 2000, "조선-일제강점기 동래읍성 경관변화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37(4), 317-336.
김선범, 1999, "성곽의 도시원형적 해석: 조선시대 읍성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2), 17-27.
김성희, 2000, "동래읍성의 형태적 특성과 변화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진선, 1994, "조선시대 청주 읍성의 특성 분석: 도시구조적 측면에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철수, 1984, "한국 성곽도시의 형성 · 발전과정과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한기, 1999, "조선시대 지방도읍의 공간구성과 기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류제헌, 1991, "한국의 도시형태학에 관한 시론적 연구 - 호남평야의 도시들을 중심으로 -", 국토계획, 59, 5-21
문영식, 1995, 조선시대 읍성 배치계획에 관한 연구: 진도읍성, 장흥읍성, 무안읍성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연길, 1989, "조선시대 읍성의 입지에 따른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태경, 1990, "조선시대 성곽도시의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심성보, 1995, 한국 읍성의 연구, 학연문화사, 서울.
심수보, 1991, 우리나라 성곽도시(도성 · 읍성)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보경 · 민경이, 2004, "경상북도 永川邑城의 空間構造와 그 變化", 문화역사지리, 16(3), 45-64.
예명해, 1998, "조선시대 지방도시의 공간구성원리에 관한 연구(1)", 국토계획, 33(6), 33-47.
이상구, 1987, "한국 읍성의 공간구조 체계", 건축과 환경.
이성재, 1999, "나주와 남원의 도시변화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조선후기 성읍공간과 근대도시변화과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창무, 1988, "조선후기 읍성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훈상, 1995, "조선후기 읍치사회의 구조와 제의", 역사학보 147, 47-94.
임덕순, 1998, "古淸州의 空間的 配置와 象徵性 -政治文化地理學的 시각-", 대한지리학회지, 33(4), 525-540.
장명수, 1994, 성곽발달과 도시계획 연구-전주부성을 중심으로, 학연문화사.
전근완, 1996, 일제하 나주면의 도시경관변화,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종한, 2004, "내포지역 읍성 원형과 읍치경관의 근대적 변형 -읍성취락의 사회공간적 재편과 근대화-", 대한지리학회제 39(3), 321-343.
최기엽, 2001, 조선조 城邑의 입지체계와 장소성", 응용지리 22.
최상식 외, 2003, "일제시대 홍주읍성의 토지이용변화에 관한 연구 -필지체계 및 소유권 변화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計劃系-, 19(8), 103-112.
최원석, 2003, "경상도 邑治 京觀의 鎭山에 관한 고찰", 문화역사지리, 15(3), 119-136.
최원석, 2004, "경상도 邑治 景觀의 역사지리학적 복원에 관한 연구: 南海邑을 사례로", 문화역사지리, 16(3), 19-44.

형태, 공간적 이미지가 그 이전의 것과 동일하다는 보장은 없다. 그 이전의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시대, 후삼국과 고려시대는 조선시대와는 상당히 다른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중심지의 입지나 형태, 공간적 이미지에서 조선시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읍치의 입지와 공간적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그러나 한반도에 존재한 모든 군현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그 수가 너무 많아 조선시대의 남양도호부를 사례로 연구한다. 본문에서 자세하게 논할 것이지만 남양도호부의 중심지는 조선시대와 그 이전의 중심지 입지, 형태, 공간적 이미지 등에서 뚜렷하게 대비되는 좋은 사례이다. 다만 조선시대 이전에는 중심지의 형태나 공간적 이미지에 대한 자료가 극히 적다. 따라서 조선시대 이전에는 입지적 특징을 주로 분석하며, 여말선초에 입지가 변화되면서 조선시대에는 어떤 공간적 이미지를 갖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2.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남양도호부의 권역은 고구려 장수왕에게 백제의 수도가 함락되는 475년까지 기본적으로 백제의 영역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신라가 6세기 중반에 한강유역을 점령하기까지는 고구려의 영역이었다. 이 지역의 행정단위를 알 수 있는 최고(最古)의 기록인 『三國史記』에는 바로 이 때부터의 행정단위 명칭이 등장한다. 이 기록에 의하면 조선시대의 남양도호부 권역 안에는 고구려 점령시 당성군(唐城郡)이 있었다. 이후 신라의 영역 안으로 편입된 후 759년(신라 경덕왕 19)에 당은군(唐恩郡)으로 개칭(改稱)되며, 9주 중 한주(漢州)의 관할에 속하게 된다. 그런데 남양도호부 권역 안에서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각 행정단위의 치소(治所)가 정확히 어디인지 밝혀진 것은 거의 없다. 따라서 통일신라시대 중심지의 입지와 공간적 특징에 대한 일반론을 쉽게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다. 다만 당성군의 치소였던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는 당성(唐城)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략적인 특징만을 알아보려고 한다.

1) 당성의 축조시기에 대한 검토

당성에 대한 『新增東國輿地勝覽』 남양도호부(南陽都護府) 고적(古跡)조 전문(全文)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자료-1) 고당성(古唐城) : 부 서쪽 20리에 있다. 고성(古城)이 있는데, 둘레(周)가 2,415척이고, 높이(高)는 10척이다. 세상에 전하기를 '당(唐)이 재사(才士) 8인을 파견하여 고려에 들어가 가르치도록 했는데, 홍(洪)씨가 그 하나이다. 자손이 대대로 귀(貴)한 사람이 되니, 사는 곳을 명명하여 당성(唐城)이라고 했다.' 라고 한다. 지금은 과원(菓園)이 되어 장원서(掌苑署)에 소속되어 있다.[2)]

위의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따져 본 연후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단

2) 在府西二十里 有古城周二千四百十五尺高十尺 世傳唐遣才士八人 往教高麗 洪其一也 子孫世貴 名所居曰唐城 今爲菓園屬掌苑署

당으로부터 재사 8인이 고려에 왔다면 그 시기는 언제일까? 당(唐, 618-907)과 후당(後唐, 923-935)이 고려(高麗, 918-1392)나 그 전신인 마진(摩震, 901-910)·태봉(泰封, 910-918)과 연결되려면 10세기초에나 가능하다. 이 때는 중국과 한반도 모두 혼란의 시기로서 피란(避亂)과 같은 형식으로 인구의 이동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당으로 표현된 중국으로부터 당성 지역으로 재사(才士) 8인으로 묘사된 사람들이 옮겨왔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또한 위의 기록에 나오는 남양(南陽) 홍씨(洪氏)는 고려시대 이래 이 지역의 유력 토착세력이었다. 이들 토착세력이 후삼국의 혼란 속에서 자신들의 기반을 튼튼하게 다졌다고 본다면 위 기록의 신빙성은 더욱 높아진다.

그러나 이들이 거주했다고 해서 당성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기록에는 문제가 있다. 경덕왕 19년(759)까지 이 지역의 이름이 이미 당성군이었음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당으로 표현된 중국으로부터 이주하여, 이 지역에 살게 된 유력 토착세력이 당성에 살았다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즉, 10세기초반 경에 유력 토착세력의 거주지가 평지가 아니라 현재의 당성과 같은 산성(山城)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당성군 지역과 중국의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도 알려준다. 이 지역과 중국과의 이러한 교류는 『三國史記』권 제34 잡지 제3 지리1의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해 더욱 분명해 진다.

자료-2) 본국 경계 내에 삼주(三州)를 두었는데, 왕성 동북쪽으로 당은포로(唐恩浦路)에 해당되는 것을 상주라 하며....[3]

위의 기록에서 이야기하는 당은포(唐恩浦)는 당연히 당은군의 포구를 의미한다. 아울러 당은군(唐恩郡)이란 명칭은 경덕왕 19년(759) 이후 사용된 것이므로 최소한 8세기 중반경 이후의 사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곳은 8세기와 9세기에도 신라에서 중국, 즉 당으로 가는 주요 포구였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대중국 주요 항구로서의 당성에 대한 기록은 7세기 중반에도 다음과 같이 나온다.

자료-3) (백제 의자왕 3년, 643) 겨울 11월 왕이 고구려와 더불어 화친하고, 신라 당항성(党項城)을 취하여 (당으로의 신라) 입조(入朝) 길을 막으려고 도모하였다. 드디어 군사를 내어 그곳을 공격하자, 신라왕 덕만(德曼, 즉 선덕여왕)이 당에 사신을 보내 구원을 청하였고, 왕이 그것을 듣고 군사를 해산시켰다.[4]

자료-4) (신라 선덕왕 11년, 643) ....팔월에 또 고구려와 더불어 당항성을 취하여 당으로 가는 길을 끊고자 도모하였다. 왕이 사신을 보내 (당의) 태종에게 급함을 고하였다....[5]

이 두 기록을 참조하여 볼 때 당항성, 즉 당성은 643년경에도 신라에서 당으로 가는 주요한 항구였음을 알 수 있다. 백제의 의자왕이 당-신라의 외교통로를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당항성을 공격하고

3) 本國界內置三州 王城東北當唐恩浦路曰尙州....
4) 冬十一月 王與高句麗和親 謀欲取新羅党項城 以塞入朝之路 遂發兵攻之 羅王德曼遣使請求於唐 王聞之罷兵(『三國史記』권 제38 百濟本紀 제6 義慈王 3년)
5) ....八月 又與高句麗謀欲耶党 項城 以絶歸唐之路 王遣使 告急於太宗....(『三國史記』권 제5 新羅本紀 제5 善德王 11년)

자 했다는 기록은 그와 같은 중요성을 충분히 알려준다. 아울러 한 개의 성에 불과했던 당항성에 대한 백제의 공격에 대해 당(唐)에까지 원조를 요청했던 신라의 대응 속에서도 이 지역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록들을 종합해 볼 때 최소한 7세기 중반부터 10세기 초반까지는 당성 지역이 대 중국과의 교류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당성은 언제 만들어진 것일까? 당성에 대한 발굴과 연구에 의하면 포곡식 성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대개 7-8세기의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포곡식 성보다 더 오래된 테뫼식 성 내부에서는 포곡식 부분보다 더 고식(古式)의 기와와 토기가 출토된다고 한다.[6] 문헌에는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당항성에 대한 기록으로 643년의 것이 가장 오래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당성지(唐城址)가 최소한 643년경에는 존재했던 당항성이었다고 보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다만 축조시기를 이 시기로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다.

신라가 이곳을 장악했던 6세기 후반기에도 대중국 통로로서의 이곳의 중요성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신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렇게 중요한 곳에 일찍부터 성을 쌓았거나 기존의 성을 이용했을 가능성은 높다.

아울러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구려가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5세기 후반부터 6세기 중반까지 이곳을 당성군이라고 불렀다.

이 기록을 참조할 때 당성이 이미 5세기 후반에도 축조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고구려가 이 지역을 중요한 항구로서 개척하여 이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시 고구려의 수도는 평양이었기 때문에 대중국 통로로서의 이 지역의 가치는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백제와의 접경지에서 가까웠다는 사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약 고구려 장악기의 당성군이 현재의 당성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고구려가 개척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존재하던 성을 그대로 이용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당성은 웅진(熊津, 지금의 공주)으로 천도하기 이전의 백제에서 축조했을 가능성이 있다.[7]

2) 당성의 입지적 특징

당성은 현재의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에 있는 구봉산(165m)에 있으며, 외형상 본성(本城)과 두 개의 외성(外城)으로 되어 있다. 이 중 본성은 구봉산 정상과 그 북동쪽 봉우리(147m), 남동쪽 골짜기에 걸쳐 있는 둘레 1,148m의 포곡식 산성이며, 외성은 구봉산 정상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원래 본성 일부를 포함하여 둘레 약 400-500m의 퇴뫼식 석축 성벽으로 축조되었으며, 통일신라시대에 현재의 모습과 같은 토축 성벽으로 확장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한다.[8]

---

6) 朴省炫, 2001, "新羅「郡縣城」과 그 성격 - 6-8세기 漢州를 중심으로 -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4.

7) 웅진으로 천도하기 이전 백제의 도읍지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있는 풍납토성이나 몽촌토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서해로 나가는 최선의 방법은 한강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낙랑 · 대방군이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던 시기나, 고구려가 낙랑군을 멸망시킨 313년 이후에도 한강 하구는 그렇게 안전한 지역은 되지 못했을 것이다. 평화시에는 한강 하구를 이용하는 항로가 이용될 수 있었겠지만 상호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이럴 경우 백제는 보다 안전한 지역에 대외 항구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며, 당성 지역은 그런 필요에 부합하는 지리적 위치에 있다.

8) 朴省炫, 앞의 논문, 2001: 12쪽

(1) 당성 위치의 관계적 의미

먼저 당성의 이러한 위치가 신라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 대당 통로로서 인식되었는가를 살펴본다.

신라는 백제와 협력하여 고구려의 한강 중상류 지역을 장악한 후, 553년에 한강 하류지역까지 손에 넣는다. 이 과정에서 현재의 아산만과 한강 하류 사이의 해안가가 신라의 영역으로 들어온다. 그런데 이 지역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신라는 백제를 배신한 형태가 되었다. 이로 인해 554년에 백제의 성왕(聖王, 523-554)이 신라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 공격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신라의 관산성(管山城)[9]에서 백제군은 대패하였고, 성왕까지 전사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후 신라와 백제는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 끊임없는 전투를 벌이게 되었고, 신라와 고구려 사이도 상호 적대적인 관계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당시의 국제관계는 신라의 대 중국 통로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한반도의 서남해안을 장악하고 있던 백제 지역과 고구려를 통과하는 방법은 이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다.

아울러 당시의 긴박한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신라에게 중국 지역과의 외교관계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었다. 이럴 경우 신라가 중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은 현재의 경기도 해안가를 통과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한 이후 고구려와는 임진강을 경계로 국경선이 만들어져 있었다.

이에 따라 임진강변에는 파주시 적성면의 칠중성(七重城)을 비롯하여 많은 방어 진지가 구축되어 있었다. 백제와의 경계선은 지금의 아산만 부근에 형성되어 있었으며, 상호 치열한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三國史記』권 제47 列傳 제7 素那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그러한 단면의 하나를 보여주고 있다.

> 자료-5) 소나〔혹은 金川이라고도 한다〕 백성군(白城郡) 사산(蛇山) 사람이다.[10] 그 아버지는 심나(沈那)〔혹은 煌川〕인데, 힘이 남보다 세고 몸이 가볍고 또 재빨랐다. 사산의 경계는 백제와 교착(交錯)하였기 때문에, 서로 침구(侵寇)·공격(攻擊)이 없는 달이 없었다. 심나가 출전할 때마다 향하는 곳에 굳센 적진(敵陣)이 없었다. 인평년간(仁平年間, 634-647)[11]에 백성군에서 군사를 출동하여 백제의 변읍(邊邑)을 초격(抄擊)하니, 백제에서도 정병(精兵)을 내어 급히 치므로 우리편 군사들이 어지럽게 퇴각(退却)하였다. 그러나 심나는 혼자 칼을 빼들고 성난 눈으로 크게 꾸짖으며 수십 여명을 베어 죽이니, 적이 두려워 감히 당하지 못하고 드디어 군사를 이끌고 달아났다. 백제인이 심나를 지목하여 "신라의 비장(飛將)이다"고 하고, 이어 서로 말하기를 "심나가 아직 살아 있으니, 백성(白城)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였다....[12]

이와 같은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경기도 해안가

9) 지금의 충청북도 옥천 지역으로 비정되고 있음.

10) 신라에서는 주-군-현의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사산현은 백성군의 영현(領縣)이었기 때문에 '소나는 백성군 사산 사람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다. 백성군은 조선시대의 안성(安城)이며, 사산현은 직산(稷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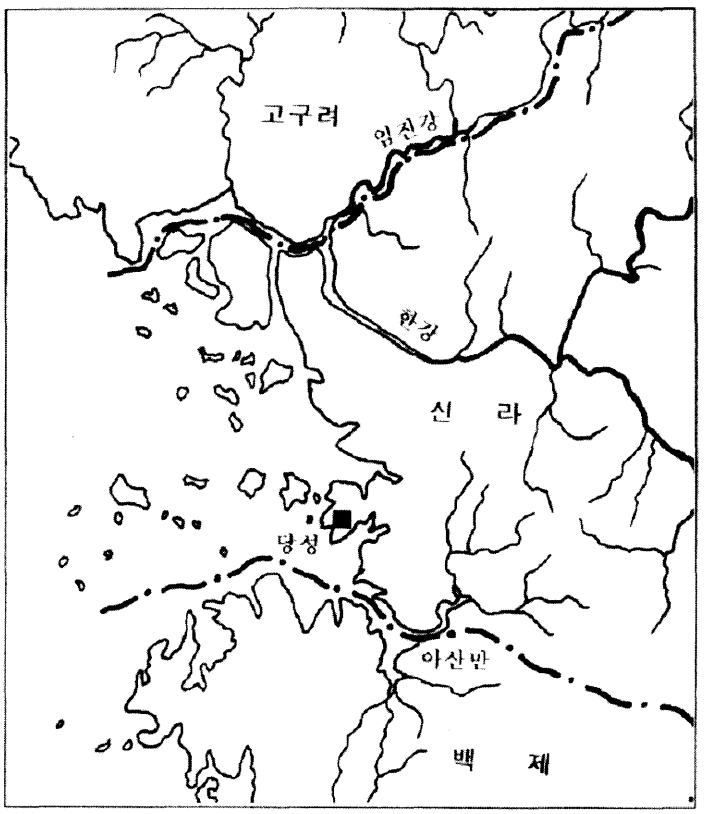
11) 인평(仁平)은 선덕여왕의 연호(年號)이다.

12) 素那[或云金川] 白城郡蛇山人也 其父沈那[或云煌川] 膂力過人 身輕且捷 蛇山境與百濟相錯 故互相寇擊無虛月 沈那每出戰 所向無堅陣 仁平中白城郡出兵 往抄百濟邊邑 百濟出精兵急擊之 我士卒亂退 沈那獨立拔劍 怒目大叱 斬殺數十餘人 賊懼不敢當 遂引兵而走 百濟人指沈那曰 新羅飛將 因相謂曰 沈那尙生 莫近白城...

중에서도 한강 하구 부근과 아산만 지역은 대 중국 통로로서는 너무 위험하다. 반면에 당항성은 백제 · 고구려와의 경계선 역할을 하였던 아산만 · 한강 하류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 따라서 위치적으로 백제 · 고구려의 공격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지역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당항성이 입지하고 있는 서신면 상안리 구봉산(165m)의 정상에서는 남쪽으로는 태안반도, 북쪽으로는 인천에 이르기까지 조망되고 있다. 바로 이와 같은 위치적 특징 때문에 당항성이 신라의 가장 중요한 대 중국 통로로서 선택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선택된 당항성은 6세기 중반부터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7세기 후반까지 근 100여 년 동안 그 중요성이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아울러 통일신라시대에도 이러한 당성의 중요성은 변화되기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이미 오랫동안 중요한 항구로서 기능했던 관성이 쉽게 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멸망할 때까지 신라와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발해(699-926)의 존재 때문에 황해도 지역의 경우 군사적 긴장이 유지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셋째, 해로(海路)로서 당의 수도인 장안(長安)으로 가는 최단 통로가 당성에서 산동반도(山東半島)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그림 1〉 6-7세기 삼국의 경계와 당성의 위치

(2) 중심지로서의 당성의 의미

그러면 이러한 당항성이 당성군의 정치 · 행정적 치소로서 기능한 것일까? 우선 신라 경덕왕 19년(759)까지 사용되었던 당성군이란 명칭을 통해서 그 가능성의 일단을 찾아볼 수 있다.

즉, 군의 명칭에 당성이라는 성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성이 정치 · 행정적 치소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신라 때 경기지역의 군현성(郡縣城)을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통일신라까지는 산성이 주로 치소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13] 따라서 지금까지는 치소로서의 당성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14] 이와 같은 중심지의 입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왔던 조선시대와는 너무 다르다. 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고대의 한반도는 지역간 끊임없는 경쟁이 일어나던 장소였다. 이와 같은 경쟁은 대략 3세기까지는 '○○國' 이라 표현된 소국(小國)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소국들은 백제와 신라로 표현된 강력한 소국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가 있었지만 영역과 내부적인 통치에서만큼은 독자성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4세기 이후에는 고구려-백제-신라라는 삼국과 가야만이 남고, 나머지 소국은 모두 독자성을 상실해 나갔다.

그러나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고구려-백제-신라-가야 사이에는 주도권을 놓고 끊임없이 경쟁하는 관계가 설정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고대적 상황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전쟁이나 전투 가능성이 항

〈그림 2〉 당성의 평면도

자료: 朴省炫, 2001:108

13) 朴省炫, 2001

14) 당성에 중심지의 모든 기능이 있었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 특히 당은포가 있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해변가의 포구에도 일정 기능이 입지해 있었을 것이다. 다만 중심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나 건물은 당성에 있었을 것이다.

상적으로 내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고대에 중심지의 입지 설정에서는 항상적인 전쟁과 전투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당성의 입지에서도 고대적인 상황을 쉽게 엿볼 수 있다. 당성은 방어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가장 적절한 입지를 하고 있다. 남쪽과 서쪽, 북쪽으로는 급경사의 사면이 발달되어 있어 성벽의 축조와 방어에 아주 유리하다. 아울러 정상 부근에는 제법 넓다란 평지가 있어 여러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다. 동쪽 사면만이 상대적으로 완경사의 곡지(谷地)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산성에서 필수적인 물의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은 조건들을 참조해 볼 때 당성은 단기전뿐만 아니라 장기전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3. 후삼국과 고려시대

고대와 마찬가지로 후삼국과 고려 전기의 중심지가 어디였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료는 별로 없다. 따라서 이 시기의 중심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시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후의 역사적인 변화양상을 논하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몇 안 되는 자료와 시대적 상황을 통해 유추하는 형식으로 글을 이어가려고 한다.

1) 중심지의 입지

고려시대에 남양도호부 권역 안에 있었던 군현은 당성군(唐城郡)·재양현(載陽縣) 정도였던 것으로 파악된다.[15] 그러나 후삼국과 고려 전기에 이들 고을의 중심지가 어디였는지를 알 수 있는 사료는 자료-1밖에 없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후삼국 혼란기에 중국, 즉 당으로부터 한반도로 인구의 이동이 있었을 가능성은 높다. 아울러 이들이 그 당시 국제적 항구로서 기능하던 당성군 지역에 정착했을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이 사료에서 이들이 '사는 곳을 명명하여 당성(唐城)이라고 불렀다' 는 부분만 제외하면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역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성이라는 명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이다.

『新增東國輿地勝覽』제9권 남양도호부 성씨조에 보면 홍(洪)·송(宋)·방(房)·박(朴)·최(崔)·서(徐)씨가 남양부의 토성(土城)으로 기록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부분 고적조 망해루 부분에는 이 고을의 홍씨 은열(殷悅)이라는 사람이 고려 태조가 처음 일어날 때 큰 공을 세웠으며, 대대로 대족(大族)이 되었다고 나온다.[16] 마지막으로 같은 책 인물조에는 고려시대에 홍관(洪灌-인종)·홍자번(洪子藩-충렬왕)·홍문계(洪文係-충렬왕)·홍경(洪敬)·홍언박(洪彦博-공민왕)·홍빈(洪彬) 등 남양부를 본관으로 삼는 인물들이 나온다. 남양 홍씨들이 고려시대 내내 이 지역의 가장 유력한 호족으로 군림하고 있었음은 분명한 것 같다. 물론 조선시대에 들어서도 남양 홍씨들의 출세는 계속 이어진다.

이와 같은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자료-1의 사실

15) 『高麗史』권 제56 지 제10 지리1
16) 州之洪氏自太祖興時有翼戴公 諱恩悅者是已 世爲大族.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의 가장 유력한 호족이 살았던 곳이 바로 당성이었으며, 최소한 후삼국과 고려 전기에는 이곳이 중심지로 기능했다고 보아도 크게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면 언제까지 당성이 중심지로서 기능했던 것일까? 『新增東國輿地勝覽』고적조의 망해루(望海樓)에 대한 기록은 산성이 중심지로 기능했던 하한 시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다.

> 자료-6) 망해루: 옛 唐城에 있었는데 지금은 폐치되었다. 이색(李穡, 1328-1396)의 기문(記文)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남양부는 삼국 때에는 당성이라 불렀는데, 본국(高麗)에 들어와서 중세(中世) 이래 익주(益州)가 되었다.....강도(江都) 말년에 이르러 남양군(南陽君)이 권신(權臣)을 죽이고 정치를 왕실로 돌려보냈으며, 문예부주(文睿府主)를 낳아서 두 조정의 대모(大母)가 되었으므로 승격시켜 부(府)를 만들었다....해정어수(海亭漁叟) 정후(鄭侯)가 부임하여, '....하물며 군상(君上)이 나온 곳(어머니의 집)이겠는가? 신하된 자가 진실로 마땅히 공경하여 감히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이에 고을 읍치(州理)에 누각을 만들어 우러러보는 것을 장려(壯麗)하게 하며, 빈객과 사신을 즐겁게 하고, 누의 이름을 써 걸기를 망해루(望海樓)라 하였다. 그리고 그 아들 국자생(國子生) 이(彝)로 하여금 내게 글을 요청하여 기문(記文)을 짓도록 하였다. 또 말하기를, '주(州)에 예전에는 못이 있었는데....후(侯)의 이름은 을경(乙卿)이요 자(字)는 선보(善輔)인데, 간재(幹材)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하였다."[17]

이 기록만을 놓고 보면 망해루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주(州)의 중심지가 당성에 있었다. 그리고 '지금(今)' 즉 조선초에는 이미 망해루가 폐해져 있었음을 통해 중심지가 옮겨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망해루가 만들어진 시기는 위에 나오는 대모(大母) 중의 하나이며, 충숙왕(1313-1330, 1332-1339)의 비인 명덕태후(明德太后) 홍씨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망해루를 만들었다는 정후(鄭侯), 즉 정을경(鄭乙卿)이 지칭한 군상(君上)은 명덕태후 홍씨의 아들인 충혜왕(1330-1332, 1339-1344) 또는 공민왕(1351-1374)이다.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14세기 전반까지도 남양도호부의 중심지는 당성에 있었다는 사실이다.[18] 그러면 왜 아직도 산성이 중심지로 남아 있을 수 있었을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후삼국 시절의 사회·정치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통일신라는 상하관계가 분명한 주-군-현의 지방행정체계, 골품제로 대표되는 중앙 귀족의 지역적 폐쇄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철저한 중앙집권적 국가를 이루고 있었다. 아울러 지방세력의 독자성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지방 무시 정책은 중앙귀족의 내분, 지방에 대한 통제력의 약화와 함께 급격히 무너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

17) 望海樓 : 在古唐城 今廢. 李穡記 南陽府在三國時號唐城 入本國中世以來爲益州.....至江都末 南陽君誅權臣 反政王室 生文睿府主 爲兩朝大母 陞之爲府....海亭漁叟 鄭侯之至也....況君上之所自出乎 爲之臣者 固當敬止而毋敢忽也..酒 作樓于州理 以壯瞻視 以娛賓使 揭名曰望海 使其子國子生彝 徵予文爲記 且曰州舊有池....侯名乙卿 字善輔 以幹材行于世云

18) 고려시대 역시 당성에 모든 중심지 기능이 입지해 있었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 당성 안의 규모가 조선시대와 같은 읍치 기능이 입지하기에는 크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심지 기능 중 일부는 당성 주위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전과는 정반대의 현상 즉, 지방세력의 독자세력화와 이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발생한 것이다. 그것이 신라-후백제-고려라는 삼각 구도로 재편되었지만 지방세력의 독자성을 완전하게 부정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기까지 존재했던 전쟁과 전투의 일상적인 가능성은 이 시대에도 발생 ·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사회 · 정치적 상황을 통해 볼 때 중심지가 산성에 입지해 있었다는 기록은 충분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세력의 힘은 고려의 후삼국 통일 속에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고려 태조인 왕건이 지방 호족들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기보다는 회유를 통한 연합을 기본 노선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방의 통치는 지방 호족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었으며, 중앙에서는 이들을 견제 · 감시하는 정도에서 머물게 되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지역의 유력 호족을 사심관(事審官)에 임명하여 신분의 구별, 부역(賦役)의 공평, 풍속의 교정(矯正) 등으로 백성들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둘째, 호족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그들의 자제(子弟)를 인질로 중앙에 15년 이상 머물게 하는 기인제(其人制)를 실시했다.[19] 고려는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지방에 대한 통제력의 강화를 꾀했다. 성종 2년(983)에는 12목(牧)을 설치하고, 같은 왕 14년에는 10도(道)를 제정했다. 현종 9년(1018)에는 4도호부(都護府), 8목(牧), 56주군(州郡), 20현(縣)의 정비가 이루어졌고, 이후 양광도 · 경상도 · 전라도 · 서해도 · 교주도의 5도와 동계 · 북계의 양계가 완성되었다.

이 때 지방관이 파견된 곳은 나말여초(羅末麗初)의 혼란 속에서 큰 세력을 형성했던 고을이었으며, 그렇지 못한 고을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했다.

이 때 전자를 주현(主縣)이라고 하며, 후자를 속현(屬縣)이라고 한다. 그러나 주현에 파견된 지방관이라고 할지라도 조선시대와 같이 지방을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지방의 통치는 아직도 호족세력에게 맡겨져 있었으며, 파견된 지방관은 그것을 감시 · 견제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 호족세력들은 자신의 세력권 안에서만큼은 최고통치자였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주현의 지배자들은 최소한 당성과 같은 산성 안에 자신들의 본거지를 마련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겠다.

2) 여말선초(麗末鮮初)의 중앙집권화와 중심지의 이동

고려후기와 조선초기는 중앙과 지방권력 사이의 관계에서 큰 변화가 나타난 시기이다. 고려는 건국 이후 지속적으로 지방관을 파견함으로써 지방세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해 나간다. 그리고 몽골의 침입과 간섭은 지방세력의 약화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광대한 제국을 건설했던 몽골의 힘은 한반도에도 큰 변화를 야기했다. 모든 권력의 힘이 원(元)의 수도인 대도(大都, 지금의 북경)로부터 나왔다. 이러한 힘이 한반도에는 수도인 개성을 통해 일차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개성은 그 이전보다도 더 큰 권력의 중심지로서 작용하게 되었고,

19)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화되면서 지방 호족의 자제를 볼모로 하는 기인제의 성격은 약화되고, 하나의 역(役)으로서만 의미를 갖게 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 대동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탄목납입인(炭木納入人)을 가리키는 의미로 바뀌었으며, 하나의 재산권으로 거래되기도 하였다.(『새國史事典』,1995, 敎學社, 215)

지방의 어떤 세력도 이와 같은 시스템을 벗어나기가 힘들었다. 이 과정에서 지방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구성하고 있던 호족들은 항상적으로 중앙과의 연결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한다.

이와 같은 흔적을 『新增東國輿地勝覽』의 인물조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다. 남양도호부의 경우 고려의 인물로 남양 홍씨만 총 6명이 나오는데, 인종(1123-1146) 때 활약했던 홍관(洪灌, ?-1126)을 제외하면 모두 충렬왕(1275-1308) 이후의 인물들이다. 이것은 남양고을에 거주했던 호족들이 원의 간섭기 이후 중앙권력과의 지속적인 연결관계를 추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 초에 들어서도 남양 홍씨들의 출세는 계속 이어진다. 이것 역시 고려 중기 이후 강화된 중앙집권 정책을 잘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중앙집권 정책의 강화는 지방관의 파견을 통해 실현되었다.

여말선초까지도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한 속현은 조선 초에 단행된 중앙집권체제의 강화 속에서 완전히 독립성을 상실하고 만다. 이 과정에서 주현이었던 고을은 그렇지 않았던 고을보다 영역과 인구라는 측면에서 월등한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그리고 고려말까지도 주현의 감시 하에 자치적인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었던 향 · 소 · 부곡 · 처 · 장 등에는 지방관이 전혀 파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은 대부분 독립하지 못한 속현과 더불어 주현의 영역으로 남게 되었다. 이런 지역이 군현의 경계를 넘어가 있는 경우 월경지(越境地)가 되었던 것이다.[20] 아울러 모든 고을을 면리(面里)라는 단일한 형태의 행정체계로 개편했던 조선 초의 직촌화(直村化) 과정 속에서 독립하지 못한 속현과 향 · 소 · 부곡 · 처 · 장의 자치적인 성격은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 다만 부곡 중 일부가 현으로 승격되어 지방관이 파견되었을 경우에만 자치적인 성격이 유지되었다.

여말선초를 지나면서 남양도호부 권역 안에는 남양도호부만 남게 되었다. 그리고 『新增東國輿地勝覽』과 이후의 읍지(邑誌)들을 살펴보면 남양도호부의 읍치는 현재의 화성시 남양동에 있었다. 이와 같은 위치는 『世宗實錄地理志』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최소한 세종(1418-1450) 때에는 읍치가 산성이 아닌 평지 또는 평지+산지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려후기까지 당성군, 즉 후대 남양도호부의 치소는 산성인 당성에 있었다. 이러한 읍치의 위치는 고대와 고려후기까지 이어졌던 산성입지와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그러면 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것일까?

첫째, 고려말 조선초에 약 100년 가까이 벌어진 홍건적 · 왜구와의 전쟁이 진정되면서 더 이상 읍치가 산성에 있어야 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남양도호부는 해안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왜구의 항상적인 침입 가능성이 내재해 있던 지역이었다. 비록 직접적인 침입이 얼마나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왜구가 강화도까지 침입했던 사실을 참고할 때 항상적인 침입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아울러 지방세력이 이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산성 거주를 합리화하려 했을 것임도 쉽게 짐작된다. 그러나 조선의 개국과 함께 점차 진정되기 시작한 왜구의 침입은 더 이상 산성의 역할에 대한 주장의 근

20) 남양도호부에 존재했던 분황부곡은 조선시대에 수원의 경계를 넘어 현재의 화성시 향남면 상신리 · 하길리 일대에 있었던 분향면으로 존재했다. 현재의 화성시 남양동 문호리 · 신외리 · 장전리 · 수화리와 비봉면 유포리 · 삼화리 일대에 있었던 인천도호부의 이포부곡도 동일한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한글학회, 1986, 『한국지명총람』18(경기편 하, 인천편), 488-533)

거를 상실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둘째, 여말선초의 중앙집권화가 중요한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특히 조선 태종 때에는 인구와 면적 상에서 나타나는 지방행정구역의 불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행정단위의 통폐합이 시도된다. 비록 향리를 비롯한 토착세력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가지만 그 여파는 결코 작지 않았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지방행정구역의 조정과정은 읍치의 이동을 동반했을 가능성이 높다. 중앙집권화 자체가 토착적인 지방세력의 약화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근거지를 재편하는 것 자체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당성군에서 가장 큰 호족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남양 홍씨들은 14세기 전반기까지도 산성인 당성에 거주하였다. 여기서 산성은 지방세력의 독자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도구였을 가능성이 높다. 중앙 정부는 바로 이 점을 중요시하여 읍치의 평지로의 이동을 촉진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조선시대 읍치의 공간적 특징

조선시대의 경우 남양도호부의 중심지, 즉 읍치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아울러 읍치 내부의 자료에 대해서도 고려시대까지에 비한다면 상당한 양이 남아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러한 읍치의 공간적 특징과 범위를 찾아보려고 한다.

1) 산과 읍치

(1) 진산(鎭山)과 읍치

남양도호부에서는 여말선초(麗末鮮初)를 지나면서 산과 읍치의 관계가 아주 중요했던 것 같다. 이와 같은 흔적은 『新增東國輿地勝覽』 산천조의 다음과 같은 기술로부터 파악할 수 있다.

> 자료-7) 남양도호부 : 비봉산(飛鳳山) - 부 동쪽 7리 되는 곳에 있으며, 진산(鎭山)이다.[21]

진산이란 개념은 '고을을 진호(鎭護) 또는 보호(保護)하는 산' 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풍수적 원리에서 나오는 주산(主山)과는 다르다.

남양도호부의 진산인 비봉산은 수원방향으로부터 오는 산줄기 위에 있으며, 읍치 주변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그러나 후대의 주산과 같이 읍치의 뒤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읍치 동남쪽 작은 하천 너머에 있다. 따라서 비봉산 역시 주산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진산은 풍수적 원리에 의해 설정된 것이라기보다는 산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진산의 개념이 언제부터 정립 · 정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기록이 없어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산이 많았던 한반도의 지형적 특징과 산악숭배에 대한 여러 신화, 대사(大祀) · 중사(中祀) · 소사(小祀)의 대상으로 산이 많이 등장하는 『三國史記』권 제32 잡지 제1 제사조의 기록 등을 참고할 때 그 연원이 상당히 오래되었음은 분명한 것 같다. 그러나 『新增東國輿地勝覽』 남양도호부

21) 飛鳳山 : 在府東七里 鎭山. 화성시 남양동과 북양리, 무송리 경계에 있는 산으로 현재는 무봉산(舞鳳山)이라고도 한다.(한글학회, 1986, 『한국지명총람』18(경기편 하, 인천편), 485)

〈그림 3〉 남양도호부의 산세와 읍치(「南陽郡邑誌」[22])

에 기록된 진산은 여말선초에 중심지가 옮겨가면서 선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남양도호부의 진산인 비봉산은 고려말까지의 치소였던 당성과는 거리상으로 너무 먼 반면에 이후의 읍치와는 가까운 편이다. 따라서 이 진산 역시 남양도호부 읍치가 현재의 화성시 남양동으로 결정되면서 선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진산의 설정은 읍치의 공간적 위엄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당성은 방어의 유리, 최고 호족의 거주를 통해 공간적 위엄을 표현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고려말-조선초의 어느 시점에 선정된 남양도호부의 읍치는 방어에도 유리하지 않으며, 최고 호족이 거주한 것도 아니다.[23] 따라서 기존의 방식으로 위엄을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진산의 설정은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즉, 고을을 보호 또는 진호하는 산을 읍치의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고을 전체를 대표하는 읍치의 공간적 위엄성을 표현하려 한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2) 풍수와 읍치

조선 초의 상황을 보여주는 『新增東國輿地勝覽』

22) 서울大學校奎章閣 영인 1988, 奎章閣資料叢書地理志 篇『京畿道邑誌 二』 "南陽郡邑誌" (奎10705).

23) 조선시대에 최고지배층이었던 양반은 그 지위가 높을수록 읍치에 거주하지 않았다. 읍치에는 향리와 같은 중인 이하의 계층이 거주하였으며, 거대 양반들은 읍치가 아닌 마을(村落)에 거주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의 기록은 읍치의 조형에 풍수적 원리의 적극적인 도입을 알려주고 있지는 않다.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진산은 풍수적 원리보다는 산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의 반영이라고 보여진다. 아울러 다른 산에 대한 기록도 위치 표시만 간단하게 나와 있을 뿐이다. 그러나 1760년(영조 36)에 편찬된 『輿地圖書』 남양 산천조에는 고을의 산세를 풍수적 관념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 자료-8) 태산(台山) - 부 동쪽 20리에 있다. 수원 증악산(甑岳山) 남록으로부터 맥(脈)이 나누어져 남쪽으로 20리를 와서 이루어졌다. 건달산(乾達山) - 부 동쪽 20리에 있다. 즉 수원 증악산로부터 맥(脈)이 나누어져 남쪽 10리에서 (이 산이) 된다. 비봉산(飛鳳山) - 부 동쪽 10리에 있다. 태산으로부터 맥이 나누어져, 동쪽(서쪽의 오류인 듯)으로 와서 (이 산이) 된다. 국사봉(國祀峰) - 부 서쪽 3리에 있다. 즉 본부의 태산으로부터 맥이 나누어져 (이 산이) 된다. 청명산(淸明山) - 부 서쪽 20리에 있다. 국사봉으로부터 맥이 나누어져 (이 산이) 된다. 천등산(天登山) - 부 서쪽 20리에 있다. 청명산으로부터 맥이 나누어져 (이 산이) 된다. 대금산(大金山) - 부 서쪽 50리에 있다. 즉 본부의 천등산으로부터 맥이 나누어져 이루어졌다.[24]

태산은 지금의 비봉면에 있는 태행산(292m)인데, 위의 기록에는 수원 증악산 남록으로부터 맥이 왔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남양도호부의 모든 산은 이 태산으로부터 맥이 갈라져 나간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산줄기를 기(氣)를 전달하며, 서로 연결된 맥으로 보는 풍수적 인식은 조선후기에 아주 보편적이었다. 아쉽게도 남양도호부의 경우에는 읍치의 구체적인 풍수적 형국을 알 수 있는 주산과 같은 기록이 없다.

이와 같은 변화는 단순히 사회 전반적인 조상숭배의 분위기 속에서 풍수가 유행하게 되었다는 측면만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읍치의 공간 요소로서 풍수적 형국이 도입되게 된 것은 중앙집권화 과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태종 때 특히 강화된 중앙집권화에 의해 읍치는 왕을 대신하여 지방관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중심지로 변모하였다. 이것은 지방관의 권리가 약했던 고려말까지와는 상당히 다른 상황이 전개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고려말까지는 읍치 또는 치소가 지방세력의 근거지라는 측면이 강했던 반면에 왕을 대신한다는 의미는 약했다. 따라서 읍치의 공간적 위엄을 높이는 것은 한편으로 중앙권력에 대한 반항으로 비칠 수도 있었다. 반면에 중앙집권화가 강화된 조선 초부터는 읍치는 왕을 대신한 권력이 발산되는 장소이다. 따라서 읍치의 공간적 위엄을 높이는 것은 한편으로 왕의 위엄을 높이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고을과 읍치의 전체적인 형국을 풍수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2) 읍치와 제사처(祭祀處)

조선시대 거의 모든 읍지에는 단묘(壇廟)조가 설정되어 있으며, 그 구성은 사직단(社稷壇)·문묘

24) 台山 : 在府東距二十里 自水原甑岳山南麓分脈南至二十里而成. 飛鳳山 : 在府東距十里 自台山分脈東來而成. 國祀峰 : 在府西三里 卽自本府台山分脈而成. 淸明山: 在府西二十里 自國祀峰分脈而成. 天登山 : 在府西二十里 自淸明山山分脈而成. 大金山 : 在府西五十里 卽自本府天登山分脈而成.

(文廟)·여단(厲壇)·성황단(城隍壇)으로 되어 있다. 이 네 개는 통칭하여 3단(壇)·1묘(廟)로 불리고 있으며, 모든 고을에 필수적으로 갖추어야만 하는 중요한 구성요소였다. 그러면 이러한 제사처가 왜 모든 지지에 필수적으로 기록될 만큼 중요한 장소였을까? 이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각 제사처의 기능부터 이해해야 한다. 사직단은 토지신과 곡식신에게 제사지내는 장소이다. 이것은 수도인 한성에도 '좌묘우사(左廟右社)'라는 원칙 하에 가장 중요한 제사처 중의 하나로 갖추어져 있었다. 문묘는 공자를 비롯한 중국과 한반도의 유명한 성현(聖賢)을 모시고 제사지내는 장소로서 향교의 대성전(大成殿)에 있었다. 여단은 억울하게 죽어간 백성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마지막으로 성황단은 고을을 지켜주는 신에게 제사지내는 장소이다. 그리고 각 고을에 파견된 지방관만이 이 네 개의 제사를 주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이와 같은 3단1묘가 모든 고을에 필수적으로 갖추어져 있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전통사회가 농업사회였던 만큼 곡식신과 토지신에게 제사지내는 것은 최고 통치자의 위엄을 만천하에 과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공자를 비롯한 성현에게 제사지낸다는 것 역시 숭유억불(崇儒抑佛)을 국시로 내세웠던 조선의 최고 통치권력을 이념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사직단과 문묘는 왕을 대신하여 지방을 통치하는 지방관의 정치적 위엄을 제사라는 문화적 상징 행위를 통해 지방민들에게 각인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여단에서의 제사는 지방민들의 억울함까지도 지방관이 책임을 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성황단 역시 고을을 지켜주는 신에 대한 제사를 통해 지방관이 고을의 안위(安危)를 책임지는 대표자임을 선포하는 장소이다. 따라서 여단과 성황단은 그 동안 민간에서 행해지던 것을 관에서 흡수하여 행함으로써 고을의 대표자로서의 지방관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듯 3단1묘는 왕을 대신하여 지방을 통치하는 최고통치자, 반대로 지방을 책임지는 대표자로서의 지방관 이미지를 결합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장소였다. 이러한 기능 때문에 3단1묘는 읍치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었다.

남양도호부에서는 3단1묘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입지하고 있었는가? 사직단의 경우 18세기말까지의 기록에는 단순히 '부 서쪽'에, 19세기의 기록에는 '부 서쪽 2리'에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 두 기록이 방향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 사직단은 조선초기부터 부 서쪽 2리에 있었다고 보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南陽郡邑誌』에 함께 나오는 지도에는 이 사직단의 위치가 국사봉 바로 왼쪽에 표시되어 있는데, 『輿地圖書』에는 국사봉이 '부 서쪽 3리에 있다'고 나와 위의 기록이 맞음을 알 수 있다.

현재도 이 사직단은 국사봉에서 동남쪽의 산줄기 중턱쯤에 남아 있다. 문묘의 경우 18세기 중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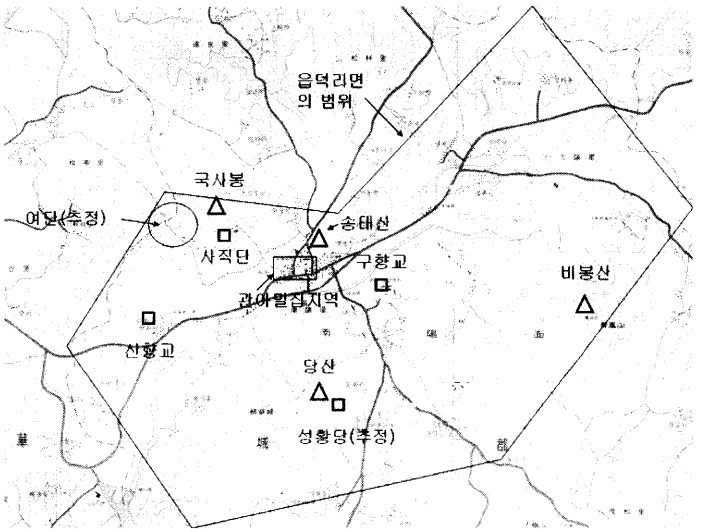
〈표 1〉 남양도호부의 3단 1묘

	시기	사직단	문묘	성황단	여단
「신증동국여지승람」	15세기 말	부 서쪽	부 동쪽 2리	부 서쪽 30리	부 북쪽
「여지도서」	18세기 말	부 서쪽			부 서쪽
「남양군읍지」	1842년 경	관문 서쪽 2리	관문 동쪽 2리		관문 서쪽 3리
「남양부읍지」	1890년대	관문 서쪽 2리			관문 서쪽 3리

의 것으로 추정되는 《海東地圖》, 1800년경으로 추정되는 《廣輿圖》[25]와 1872년의 《南陽地圖》[26], 『南陽府邑誌』[27]에 수록된 지도 등 대부분의 지도에 위의 기록과 동일한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1842년경의 『南陽郡邑誌』에 수록된 지도에만 읍치의 서쪽에 있었던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잠시 이전된 시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28]

성황단의 경우 기록에는 『新增東國輿地勝覽』에만 부 서쪽 30리에 있다고 나온다. 『南陽郡邑誌』에 수록된 지도에 성황단이 유일하게 보이는데, 읍치 남쪽의 당산(唐山)에 표시되어 있다.[29] 이를 통해 성황단이 15세기말에서 1842년 사이에 옮겨졌음을 알 수 있다. 그 이동 시기를 기록에서 찾을 수는 없지만 다른 제단과의 관계나, 다른 고을의 예를 통해 볼 때 15세기말에서 얼마 멀지 않은 시기에 읍치 남쪽의 당산으로 옮겨졌다고 추정된다.[30] 여단은 조선초기에는 북쪽에 있다가 18세기말이 되기 이전에 관문 서쪽 3리로 옮긴 것 같다. 국사봉이 '부 서쪽 3리에 있었다' 고 나오는데, 아마도 그 근처가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그러면 읍치와 3단1묘 사이에는 공간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 남양도호부에는 서쪽의 국사봉이나 그 근처에 여단(3리)과 사직단(2리)이, 남쪽의 당산에는 성황단이, 동쪽에는 문묘(2리)가 자



〈그림 4〉 남양도호부 읍치의 범위와 구성

25)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도서번호는 '古4790-58' 이다.
26)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도서번호는 '奎10354' 이다. 서울大學校 奎章閣에서 1997년에 , 『朝鮮後期 地方地圖 京畿道편』으로 영인하여 간행하였다.
27) 서울大學校奎章閣 영인, 1998, 奎章閣資料叢書地理志 篇『京畿道邑誌 二』 "南陽府邑誌"(古915 · 12-M289g).
28) 현재 남양의 향교는 읍치의 서쪽에 복원되어 있다. 답사에 의하면 이 위치로 향교가 옮겨간 것은 1872년경이었다고 전해진다.
29) 이 당산은 세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동쪽 봉우리의 동쪽 기슭을 지나가는 321번 도로 위에 당재라는 고개가 있으며, 그 남쪽의 마을 이름은 당현동이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성황당은 당재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30) 15세기말에 성황단이 부 서쪽 30리에 있었다는 기록은 고당성(古唐城)이 부 서쪽 20리에 있었다는 기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고당성이 치소로 기능할 때의 흔적이라고 추정된다.

리잡고 있다. 여기에 진산인 동쪽의 비봉산(7리)까지 확장시켜 본다면 읍치 주변에는 읍치의 공간적 위엄을 높여주는 상징적인 장소들이 자리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남양만을 놓고 볼 때 읍치의 실질적인 공간 범위는 바로 제사처나 진산 등을 잇는 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5. 결론

지금까지 조선시대 남양도호부 중심지의 입지와 공간적 이미지가 삼국시대 이래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남양도호부의 전신인 당성군 또는 당은군의 중심지는 조선시대와 전혀 다르게 당성이라는 산성에 있었다. 당성의 축조 연대는 백제가 웅진(지금의 공주)으로 천도하는 475년 이전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후대의 남양도호부 중심지가 당성이란 산성에 입지하게 된 이유는 삼국시대까지의 잦은 전쟁에 대한 대비라는 정치적 · 사회적 상황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후삼국으로부터 고려시대 후반기인 14세기 전반기까지도 당성군의 중심지는 산성인 당성에 있었다. 이러한 중심지의 입지는 후삼국시대의 혼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고려전기의 상황을 반영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후삼국시대의 끊임없는 전쟁, 몽골이나 왜구 및 홍건적의 침입에 의한 고려시대의 잠재적인 전투 가능성이 중심지를 계속 산성에 있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했거나 파견되었더라도 지방 호족의 감시 정도에 머물렀던 고려시대에도 군현의 지배자들은 최소한 당성과 같은 산성을 자신들의 본거지로 유지하려 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셋째, 고려말과 조선초에 걸쳐 남양도호부의 중심지는 산성인 당성에서 평지인 현재의 화성시 남양동 일대로 옮겨오게 되었다. 이러한 중심지의 입지 변화는 고려말 조선초의 약 100년 사이에 벌어진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이 사라지면서 읍치가 더 이상 산성에 있어야 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지방관의 파견과 실질적인 지방통치 기능의 수행을 통한 중앙집권화 과정 속에서 지방 토착세력의 근거지를 벗어나는 것이 중앙의 기본 정책이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넷째, 조선시대의 읍치에는 진산(鎭山), 풍수적 형국 인식, 3단1묘의 제사처 등을 배치하여 공간적 위엄을 이미지적으로 높이고 있다. 이것은 중앙집권화의 강화를 통해 중심지가 더 이상 지방세력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대신하는 공간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조선시대의 지방 중심지는 왕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지방관의 소재지였기 때문에 공간적 이미지의 상승은 왕의 위엄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이용되었던 것이다.